

日本시멘트業界의當面問題

(1964.12.31 日字 Far Eastern Economic Review 訳載)

日本의 시멘트製造業者들은 現在 生產コスト의 切減과 成長하는 国内需要에 對備하기 為한 設備投資計劃을 推進中에 있다.

그러나 이와同時に 시멘트業界는 不景氣의 可能性에 對해서 忧慮하고 있다. 그 한가지 理由는 輸出의 減少때문이다.

日本시멘트輸出協會의 最近 報告에 依하면 1964年11月의 輸出実績은 1,35,240 M/T으로서 1963年11月의 実績에 比하여 30.3%가 減少된 것이다. 1964年4月부터 11月까지의 시멘트輸出実績은 總 1,103,000 M/T으로서 前年 同期에 比하여 約 21%低下되었다.

이와 같은 沈滯은 特히 正常的으로는 시멘트輸出에 있어 繁盛期가始作되는 8月부터 頗著히 나타난다. 従来 東南亞細亞와 韓國은 日本시멘트輸出의 大宗을 이루어 왔으며 이들은 美國의 援助計劃에 依하여 支払되었다. 그러나 美國이 弗貨節約을 図謀하고부터는 그와 같은 基金이 削減되었으며 따라서 日本의 시멘트 化學肥料 및 其他 商品의 購買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台湾, 泰國 및 印度等은 그들 自體의 生產設備를 發展시켰을뿐만 아니라 시멘트를 輸出함에 있어 日本과 競争하기始作했다.

또 하나의 強力한 競争者は 中共이다. 中共의 시멘트는 質은 낮으나 價格에 있어서는 競争的이며 相異한 地域條件에 適合할 수 있다.

비록 日本의 시멘트輸出은 總生産의 10%에 不過하지만 日本의 生產業者들은 以上과 같은 事態의 發展을 褒賞하고 있다.

最近 日本에 있어서의 經濟不況과 緊縮通貨政策은 地方 企業家들로 부터의 시멘트需要를 低下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日本通商省當局은 시멘트製造設備에 대한 投資를 꺼려하고 있다。

또한 日本시멘트協會는 主로 過剩生產에 起因한 國內市場에 있어서의 現在의 不況에 비추어 시멘트製造業者들에게 資本投資을 줄이도록 勸告하고 있다。 더욱이 시멘트需要는 앞으로 數年間減少될 慎向에 있다。 그런데 生產增加는 過去 數年間의 增加率에 比하면 매우 낮은 편이긴 하지만 아마 年率 約 8.9%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法的으로나 또는 다른 如何한 方法으로도 會社의 自己基金이나 或은 銀行借入金에 依한 設備擴張을 制限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會社는 그들의 拡張計劃에 대한 政府나 協會의 如何한 制限에 대해서도 反對하고 있다。

울림 빌建設은 시멘트業界에 事로 多大한 利潤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시멘트의 最大 預客인 建設產業은 울림 빌競技로 因하여 더욱 큰 利得을 보았다。 日本 시멘트 「메이커」들은 國내需要가 現在의 年間 約 3,000 万屯 水準에서 1965年에는 3,700 万屯으로 그리고 1970年에는 5,200 万屯으로 扩大될 것이라는 日本通商省의 推計에 刺戟을 받아 需要增加를 높가할 만큼 危険한 速度로 그들의 生產能力을 拡張해왔다。 通商省官吏들은 1963年度 1年間만으로도 「메이커」들이 設備擴張을 為해서 450 億円을 投入한 것으로 推算하고 있다。

또하나의 問題는 시멘트市場 價格의 低下이다。 過去 10年間에 걸쳐 비록 輸送費, 労賃 및 原資材費等이 上昇했음에도 價格은 約 30%가 下落했다。勿論, 그責任은 主로 「메이커」들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實際 市場事情에는 別로 拘碍됨이 없이 生產能力을 拡張시켰기 때문이다。

日本의 三大 「메이커」(日本, 小野田, 住友)들이 総生産의 50%以上을 占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々 40餘個以上的 傍系 會社를

가지고 있다. 小野田의 가장 主要한 株主는 三菱財團과 三菱銀行, 日本生滅保険 및 協和銀行이며 또한 小野田의 輸出을 担当하고 있는 三井와도 緊密한 紐带来를 맺고 있다。日本시멘트는 日本鋼管을 包含하는 浅野財團의 一部이다。

住友시멘트는 住友產業團体의 한 主要한 部分이다。

現在 進行中인 主要 시멘트施設拡張計劃 가운데는 住友시멘트가 Wakayama 시멘트를 吸收하고 月產 合計 4万屯能力의 兩個Kiln 을 새롭히 建設할 計劃이다。三菱시멘트의 同業會社인 富士見開発은 각々 日產 1,300屯能力의 4個킬론을 세울 計劃이다。또한 日本시멘트는 日產 1,500屯의 새로운 킬론을 建設할 計劃이다。秩父와 三井을 包含한 다른 시멘트會社도 大規模의 拡張計劃을 가지 고 있다。